

새벽부터 이어진 투표 행렬... ‘새로운 세상’ 염원

본투표 날 투표소 현장

동구 최고령 109세 할머니 주권 행사
고3 학생들도 생애 첫 투표 줄 이어
“분열 끝내고 통합 힘쓰길” 한목소리

“지금처럼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요. 새롭게 뽑힌 대통령은 분열을 끝내고 통합에 힘썼으면 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인 3일 광주 곳곳 투표소에는 새벽부터 마감 직전까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길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5시50분께 남구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일찌감치 나온 10여명의 시민들이 투표 개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6시 정각 투표소가 개방되자 차례로 들어와 이름과 주소지, 등재번호 등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건네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오전 6시30분께 투표를 마치면서 이곳 투표소의 첫 유권자로 기록된 남기철(69)씨는 “사전투



109세 어르신 투표 3일 오전 광주 동구 유권자 중 최고령자인 109세 김정자 어르신이 동구 계림경로당에서 투표하고 있다. /장은정 기자



104세 어르신도 한표 104세 백삼봉 어르신이 3일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아빠랑 민주주의 체험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온 유권자가 3일 광주 동구 무등산리버파크 탁구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로 연로했던 김 어르신이지만 “사는 날까지는 선거마다 빠짐없이 투표할 것”이라며 “다들 투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애 첫 투표를 위한 10대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오전 11시30분께 남구 양림동 학강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친 이채슬(18)양은 “수능이 끝나면 사회로 나가는 입장이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 대통령 뽑히면 좋겠다”고 밝혔다.

각 투표소는 정오를 지나면서 더욱 북적였다. 실제 일부 투표소는 정오 전·후로 대기 행렬이 건물 밖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로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됨에 따라 해가 진 뒤 마지막에 투표소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서구 화정동 금호아파트 1층 경로당에서 오후 7시28분께 투표를 마친 전중채(89)씨는 “마음에 꼭 드는 후보가 없어 기권하려다 늦게라도 투표소에 왔다”며 “이번에 뽑힌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같은 투표소에서 오후 7시43분께 투표한 이종훈(40대)씨는 “일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는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새롭게 바뀔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했으면 한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힘줘 말했다. /주성학·장은정 기자

“잘못 찍었다” 투표용지 훼손 소동 잇따라... “신분증 깜빡” 헛걸음도

본투표·개표 이모저모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택의 날인 3일 광주·전남 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풍경이 연출됐다. 반면 개표소에서는 분주함 속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순조로운 개표가 이뤄졌다.

◇투표 용지 훼손 행위 잇따라 사전 투표에 이어 본투표 때도 투표 용지 훼손 행위가 잇따랐다.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A(68)씨가 투표 용지를 찢었다.

A씨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전 7시15분께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주민 B(65)씨가 같은 이유로 투표 용지를 훼손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행위에 대해 조사한 후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사전투표 때

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한 C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신분증 ‘깜빡’ 투표소 확인 ‘아차’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투표소를 착각해 발걸음을 돌린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포착됐다.

이날 오전 6시30분께 남구 양림동행정복지센터에선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10여명의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전 11시50분께에는 남구 월산동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에서 관의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왔다가 집으로 다시 가는 유권자도 있었다.

30대의 한 유권자는 “어제 신분증을 꺼내둔 걸 깜빡하고 빈 지갑을 들고 왔다”면서도 “번거롭지만 조금 있다 다시 투표하러 오겠다”고 멧먹은 얼굴로 말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접근성 불편 여전”

선거 때마다 제기돼 온 장애인 유권자 접근성 불편 문제는 이번에도 여전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전남중학교, 용산초등학교, 학강초등학교 등 광주 지역 투표소 현장을 점검했다.

이 중 전남중학교의 경우 안내 인력이 배치되



신중한 개표 작업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지 않아 장애인주차장에서부터 투표소까지 동선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처음 방문한 유권자들은 승강기 위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시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입으로 조작하

는 보조기기 등 투표 보조 도구가 현장에 구비돼 있음에도 요청이 있어야만 안내가 이뤄져 대부분의 장애인 유권자들은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는 “신체장애인을 위한 기본 편의 제공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편을 겪는 유권자들이 많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안내 보완 등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중 또 신중” 개표소 긴장감

이날 오후 8시10분께 제21대 대통령 선거 광주 개표소 중 한 곳인 남구 광주대학교 체육관은 분주함 속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의 경비 속에 투표함이 순차적으로 반입되자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 상태 확인을 거쳐 개함이 이뤄졌다.

개표는 ▲점수부 ▲개함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 확인석 ▲위원 검열석 ▲정리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개표 사무원들이 연신 손을 놀리며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했고 개표 참관인들은 개표소 곳곳을 돌며 각 처리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다.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최모(50대·여)씨는 “개표 참관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해 지난해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개표 참관을 하게 됐다”며 “피곤하지만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재형·주성학·장은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1 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2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3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